

대한양계협회 소식

제 5 회 축산물생산자단체협의회 개최

- 11월 2일, 본회 회의실에서 -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양축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 5 회 축산물생산자단체협의회가 11월 2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4 개 생산자단체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매스컴에서 「최고기보다 돼지고기, 닭고기 영양가가 더 많다」는 거짓 정책홍보 운운...」에 관한 보도에 대해 해명 내용 설명과 83년도 사료협회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료협회를 방문키로 하고 유사돈콜레라와 제란값의 하락에 대한 대비책강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제 5 회 축산물 생산자단체협의회

또한 축산회관 수리기간이 12월 4일까지인데 그동안 불편하더라도 각 협회에서 협조하여 서로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수원분회 현판식 거행

- 본회장님 강석부씨 -



〈강석부 본회장〉

본회 수원분회(분회장: 강석부) 현판식이 지난 11월 5일(금) 오전 11시 수원시 영동 소재 분회회의실에서 본회 황인옥전무와 수원분회원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강석부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78년도 수원계우회 창립이후 지금까지의 발전에 대한 소개를 한 후 전회원의 대동단결을 통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황인옥전무는 축사를 통해 협회현황 소개 및 양계산업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양계인의 조직강화를 통해 힘이 뭉쳐져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정무원 강석부 수원분회회장
 △ 정민석에 하근영 수원분회부회장

안양분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질병 등 학술세미나도 개최 -

안양분회(분회장 : 이태섭)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가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 안양시 신도에식장에서 유관기관 관제인사, 안양분회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이병기부분회장의 개회선언과 연혁소개에 이어 이태섭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양분회원이 생산한 양계산물은 상인들이 품질을 인정해 앞을 다투어 가져가려고 한다」고 전하고 지난 10년간 쌓아온 전임자들의 업적을 치하하고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가 더욱 힘찬 전진을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열린 기념식에서 안양축협조합 심정구조합장, 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계역과장, 본회 황인옥전무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업계 전반에 관해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특히 세제문제와 축산법 개정, 도계법시행, 유통구조개선, 소비홍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수원분회는 지난 1978년 8월 19일 수원시, 화성군, 용인군 일대의 120여명의 육계회원으로 수원계우회를 창립, 80년부터는 산란계사육자를 영입 현재는 육계·산란사육자가 함께 본회의 수원분회로 가입, 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특히 회원의 사료알선사업, 친목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회원 각자가 양계사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자체적으로 수원지역 일대의 소비자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펴고 내년에는 양계산물 공판장을 개점할 예정으로 있다. 회원 각자는 모임을 아끼는 마음에서 일일당직제도를 운영, 스스로의 사명을 다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잘 되나가고 있어 모범분회로 발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주소 : 수원시 영동27-4 ☎ (5) 6336

분회장 : 강석부

부분회장 : 조정래(육계), 임진관(산란계)

분회임원 : 배영옥, 김계순, 박성기, 최종운, 신길호

감사 : 김봉갑, 송상정



〈이태섭 분회장〉 〈최정욱 박사〉 〈김진의 이사〉

세미나는 금년들어 양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전염병후투기관염(ILT)과 기타 질병'에 대해 최정욱박사(가축위생연구소 연구관)가 '사료원료 수입전망'에 대해 장호림 본부장(제일제당 사료사업본부)이, '양계업의 전망'에 대해 김진의이사(대한제당 무지개사료)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세미나 후에는 분회원과 참석인사 모두가 모여 자축파티를 가진 바 있다.

안양분회는 지난 1972년 6월 안양지역 지역 대표자가 모여 「10인친목회(회장: 강태희)」로 발족해 지난 1975년 2월 40명 회원으로 안양계우회로 개칭, 76년 3월 본회에 가입 '안양분회'로 발전한 바 있다.

또 안양분회는 회원 복지와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 야유회 개최, 계란직매장 개설, 육계판매장 설치, 군부대 위문품 전달 등 활동을 통해 회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업계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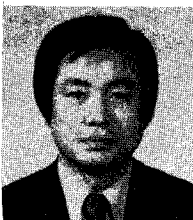
동회는 현재 10대회장에 이태섭씨, 부회장에 이병기씨, 총무에 조이중씨가 각각 임원을 맡고 있다.



△ 안양분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

'82 감별사 경진대회 및 자격시험

-고등 3명, 갑종 38명 합격-



(정채인 위원장)



(정유범)



△ '82 감별사 자격시험을 치고 있는 응시자

본회 감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채인)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농촌지도소 대강당에서 감별사 경진대회 및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국내 유력일간지 및 월간지의 열띤 취재경쟁 속에서 열린 이날 자격시험은 전국에서 80명이 응시했는데 갑종감별사에 67명이 응시해 38명이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고등감별사는 13명이 응시해 3명이 합격했다. 갑종은 합격율 56%, 고등은 합격율 23%로 지난번 시험에 비해 고등은 성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또한 이날 갑종시험에서 고창양계의 김경숙씨는 팔목성장하여 100%감별의 놀라운 성적으로 합격해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자격시험에 앞서 진행된 감별사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각 지역대표 11명이 참가하여 자웅을 겨루었는데 우승은 천호부회장의 정유범씨가 차지했다. 정유범씨는 8년경력의 소유자로 그간 장려상과 준우승에만 머물다 작고끝에 이번 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경진대회 입상자 및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경진대회 입상자

- 우 승: 정유범(천호부회장) 3분56초, 100%
- 준우승: 김윤환(천호부회장) 4분20초, 100%
- 장려상: 김수환(고창양계) 4분31초, 100%

고등감별사 합격자

김종배, 최철인, 윤주호

갑종 합격자

서미화, 김영수, 조병필, 김희숙, 이상수, 김강수, 김수은, 김상운, 박화식, 백권욱, 이명순, 송형태, 홍동근, 김동용, 정치환, 박정만, 유재분, 김성만, 도경진, 구창진, 용인환, 신용태, 김용달, 조종만, 하덕우, 이도봉, 이상성, 장혁조, 천필애, 한양수, 박정식, 김상준, 김주익, 박종섭, 황재우, 강대일, 김경숙, 김영희

축산업 소득세감면건의에 대한 회신

- '83년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대폭인하조정 -

본회를 위시한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동용), 사단법인 한국낙농비육협회 (회장 황영구) 등 3개 생산자단체에서 재무부, 농수산부, 국회 농수산분과, 재무분과에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감면을 건의한 바 (본지 10월호 p151 참조) 이에 대한 재무부의 회신이 있었다.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 감면건의에 대한 회신

1. '82. 10. 4차 귀 협회 등 3개협회에서 제출하신 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축산업에 대한 50%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하게 된 배경은 '83년부터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이 대폭 인하조정되어 세부담이 크게 경감됨에 따라 현재 광업·축산업 등 일부 산업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직접감면인 소득공제제도는 폐지한다는 조세감면조정원칙에 따라 광업에 대한 석탄증산 소득공제, 축산업소득공제,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업 소득공제제도가 똑같이 폐지되며, 이와같은 축산업·광업등 일부 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조세지원을 받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간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세부담면에 있어서 불공평이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축산업에 대한 50% 소득공제제도를 '83년부터 폐지함에 있어서도 '82년중에 축산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체에 대해 귀협회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83년부터 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법률생활의 안정성 보호와 기득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86년까지는 5년간 계속해서 50% 소득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농가부업축산업범위는 현실성있게 대폭 상향 조정하여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지원을 계속할 방침으로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 4 차 이사회 개최

- 10월 13일 본회회의실에서 -



△ '82 본회 제 4 차 이사회

본회 1982년도 제 4 차 이사회가 지난 10월 13일 (수) 오후 2시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회의록 낭독에 이어 업무현황보고와 사업실적 검토, '82년도 제1차 감사보고 부의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회 황인옥전무는 지난 5월26일 이후의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각종행사 참가, 회의개최 외에 간행물발간, 지도조사, 홍보사업, 정화추진, 방역대책, 검정사업, 육계분과, 채란분과, 감별분과, 부화 및 중계분과 등 각종사업전개 내용과 행정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부의안건으로 신가입회원의 승인 및 퇴원제명, 부천분회와 수원분회 등록 승인과 추경 예산안의 승인, 본회 위임전결규정(안) 심의 등이 있었다.

기타사항으로는 T·V 소비홍보광고에 생산자가 참여하고, 사료안정기공책정에 생산자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것과 사료안정기금의 조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로 결의했다.

**김중경지부장, 노영한국장
농수산장관 표창**



(김중경 지부장)



(노영한 국장)

지난 10월21일 개최된 제9회 축산 진흥대회에서 본회 부산경남지부 김중경지부장, 노영한국장은 축산진흥유공자로 농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상윤회장 자유중국 방문

본회 이상윤회장은 지난 10월20일 국제간 정보 및 기술교류를 위해 일본과 자유중국을 방문하고 10월27일 귀국했다.

이회장은 일본 양계협회와 자유중국양계협회를 각각 방문해 상호 정보교환과 유대강화를 위해 공동관심사를 논하고 귀국길에 대만의 닭경제능력검정소를 방문하였다.

제 2 차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매월 15일 오후 정기월례회를 갖기로-

제 2 차 채란분과위원회가 지난 10월 8 일 오후 2 시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금년들어 두번째 개최된 이날 회의는 전국의 채란 양계업자들이 모여 공통된 관심사를 논하고 최근 난가의 형성과 질병문제 등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최근 채란업계는 난가가 급상승, 급하락하는 가운데 많은 생산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안정된 난가형성으로 양계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희망해 제도적인 장치와 난가공 공장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 금년들어 기승을 부리고있는 닭전염성후두기관염(ILT)에 대한 농장사례 보고 및 ILT백신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누는 한편 최근 만연되는 양계장 질병에 대해 다음 회의에는 가축위생연구소 등을 통해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청취할 것을 결의했다.

채란분과위원회는 안정된 양계산업 발전과 채란업계의 공동관심사를 모색키 위해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기로 합의하고 전국의 채란양계인으로 구성된 채란분과위원회를 매월 15일(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후 2 시에 개최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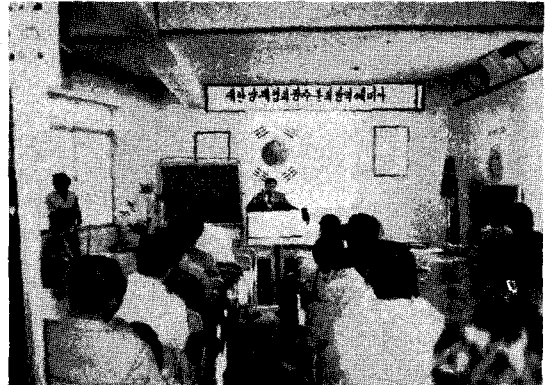
로 하였다.

아울러 채란분과위원 외에도 관심이 있는 양 축가는 매월 회합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키 로 결의했다.

11월 채란분과 월례회는 11월15일(월)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본회 황전무 임국장 일본양계시찰

본회 황인욱전무와 임덕성사무국장은 일본의 양계업현황을 돌아보기 위해 오는 11월 중순 출 국할 예정이다.



최했다.

많은 양계장들이 질병의 피해로 관심도가 고 조되어 있는 때에 개최된 이번 질병세미나는 가 축위생연구소 계역과의 김순재박사(본지 편집 위원장)를 초빙, 전염성후두기관염(ILT), 뉴켓 슬, 감보로, 마이코프라스마균(C. R. D), 계 두 등 양계질병 전반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개최된 이번 세미 나 는 본회회원과 인근 양계인, 관련업체의 이 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광주분회 질병세미나 개최

- 김순재박사초빙, 양계질병 전반에 대해 -

본회 광주분회(분회장 정태희)는 올들어 전 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각종 양계질병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1월5일 오후 경 기도 광주 소재 J·C 회관에서 질병세미나를 개

본회 닭 경제능력 검정소 부지 알선요망

본회는 김포소재 닭 경제능력 검정 소가 판매됨에 따라 새로운 검정소 후보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물색하고 있는 바 회원제위께서는 좋은 후보지 를 본회 ☎ 752-3571~2)에 알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회는 새로운 부지가 결정되는 대 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검정소 대상지 조건

1. 서울에서 승용차로 1시간 이내 의 거리
1. 포장도로에서 1km 이내에 위치 한 곳
1. 주위 2km 내에 기존의 양계장이 없는 지역
1. 전기, 전화 가설이 가능한 곳
1. 면적 : 10,000~20,000평 (가용 면적이 10,000평 이상이어야 함)
1. 지목 : 임야 또는 잡종지로 양계 장 건축이 가능한 곳.